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8일 월요일 음 12월 27일 (4물)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C. 낮 최고기온은 5-9°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moon phase inform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Jeju and Seogwi.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like UV index and visibility.

월드뉴스

53년 만에 지갑 찾은 미 91살 할아버지

신분증 등 고스란히 보관돼

미국의 91살 할아버지가 30대 시절 남극에서 분실했던 지갑을 53년 만에 되찾았다.



53년 만에 되찾은 지갑.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폴 그리섬은 미국의 남극 연구 기지에서 잃어버렸던 지갑을 최근 우편물로 받았다.

업을 하던 중 사물함 뒤편에서 발견됐다.

그리섬은 1960년대 후반 미 해군 소속 기상학자로 남극 기지에 파견됐다가 지갑을 분실했다.

기지 관계자는 수년간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가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스티븐 디카토에게 지갑을 보냈다.

그가 되찾은 지갑 속에는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바랜 해군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 화생방 공격 시 대응 요령을 담은 카드와 맥주 배급 확인 카드,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 아내에게 보낸 우편한 영수증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디카토가 퇴역 군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도움으로 분실된 해군 신분증명 팔찌를 원주인에게 찾아줬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리섬은 "(지갑을 받고 난 뒤) 난 그저 감짝 놀랐다"며 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에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귀포시의 문화도시조성 사업은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해, 시민 주도로 마을에 잠재해 있는 고유한 문화와 다양성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리섬의 지갑은 지난 2014년 남극의 맥머도 기지에서 건물 철거 작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백록담

53일째 휴관 중인 어느 공립미술관



김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미술관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금줄처럼 형광색 줄이 걸려 방문객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코로나19 휴관'이라는 팻말이 그 이유를 말해줬다.

있지만 실내 전시실은 감염 확산과 예방을 취지로 2개월 가까이 휴관 중인 실정이다.

1층 미술관인 제주추사관은 제주 지역 7개 공립미술관 중 하나지만 유독 휴관이 길어지고 있다.

등 일찍이 공립미술관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공립미술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은 미약해 보인다.

2020년 1월 기준 문체부가 펴낸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담긴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를 보자.

고 있는 걸 보여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만이 아니라 저지, 대정에 각각 흩어진 공립미술관이 지역과 밀착된다면 읍·면 문화공간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열린마당

시민 중심 문화도시, 서귀포시를 꿈꾸며



김태엽 서귀포시장

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구체화해 나가겠다.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문경진 서귀포소방서 대인119센터장

폭설이 극성스러웠던 겨울이 지나고 절기상 입춘이 됐지만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3대 난방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량이 급증했다.

부주의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화재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법으로 전기장판은 사용 전 파손되거나 마모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35-37°C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며, 사용 후 또는 외출 시에 전원을 꺼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기 열선은 열선을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말아야 하며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지정된 연료를 적정량만 사용해야 하며, 불티가 비산돼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으므로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서 사용해야 한다.

난방용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지만 관심과 주의를 소홀히 할 때 한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해 2021 신축년의 시작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Yangbokjeom (제일사 양복점) featuring a list of clothing item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Jeju Natural Landscape (제주자연조경) featuring a garden and landscaping services.